

#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5차 국내논의 결과

## 1. 개요

- (목적) UN 푸드 정상회의(9월)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(일시/장소) '21.6.1.(화) 14:00~16:00 /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
- (참석) 국회, 농식품부, KREI, 농특위, 생산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 15여명
  - \* 축사 :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, UN FAO 탕 성야오 소장(영상), 주재 : KREI 원장, 발제 : 국제협력국장(국제논의), KREI 황윤재 박사(국내논의), 농특위 홍근형 팀장(국가식량계획)
  - \*\* 토론자 : 우리부(국제국장, 식량정책과장), 한국농축산연합(임병희), 농민의길(이무진), 한농연(서용석), 청년농업인연합(강선아 회장), 소비자시민모임(윤명 사무총장), 녹색소비자연대(유미화 상임위원장, WFP (임형준 소장),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(곽금순 대표), 서울대 임정빈 교수, 농협경제연구소(홍광석 팀장) 등

## 2. 주요 논의 사항

- (공통) 향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자·소비자·정부 간 역할 분담과 함께, 현장 소통 및 참여 거버넌스 구축 필요
  - \*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(농축산연합), 생산자단체-정부 간 협력(농협경제연구소), 생산자-소비자-정부 간 역할 분담(한농연), 청년 농업인 의견 수렴(청연), 생산자-소비자 간 소통과 문제의식 공유(소시모, 녹색소비자연대), 기타 제조·외식업체의 참여 등 강조(임정빈 교수)
- (식량안보) 생산자단체는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 강조
  - \* 밀 가격보장과 유통·가공 지원(농축산연합), 소농 중심 생산자 조직화(농민의길),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면적 확보(한농연) 및 국내 생산 인력(청연) 확충 등 필요
- (식량위기에 대비한 안정적 수입(소시모), 생산비 보장과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급식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(식생활네트워크) 등도 언급
- (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) 생산·소비 전 과정에서 환경 고려 필요
  - \* 적정 생산으로 산지폐기 최소화(한농연), 친환경 농업 홍보·지원(청연), 농업 가치 교육(소시모), 지역 내 생산·소비(녹색소비자), 음식물 폐기 감축(WFP), 일회용품 사용 자제(식생활네트워크) 등
- (먹거리 보장) 영양 부족 문제보다는 영양 불균형 해소가 핵심
  - \* 농촌 고령자 및 청년 세대 영양 불균형 해소(청연),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(농축산연합), 복지부 통합 돌봄 논의 적극 참여(식생활네트워크) 필요 등